

즐거운 병영생활 마음 수련 지침서!

2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중사 구입 문의: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농협 053-02-109450(예금주: 문재승)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해가 지면 시드나니,
평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과담박 상계 · 달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 256쪽 | 13,000원 | 사륙판

공부하다 죽어라

혜암스님의 벼락같은 화두 정찬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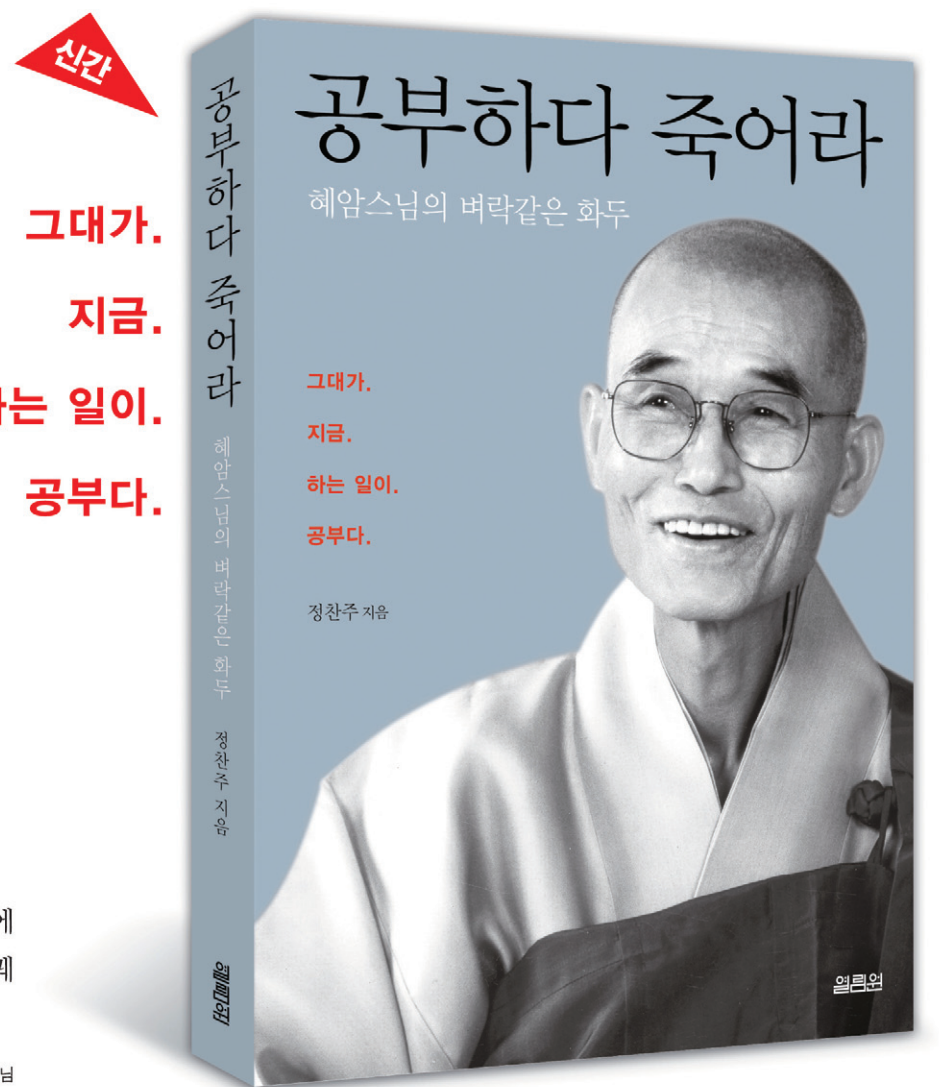
성철스님 이야기 『자기를 속이지 말라』, 법정스님 이야기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에 이어 혜암스님이 정진했던 암자를 따라가며 써내려간 이야기가 담긴 또 하나의 산문집!



학생은 무아를 느낄 때까지 즐겁게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조직 속에서 무아를 경험할 만큼 나를 비워야 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역시 나를 버리는 무아 상태에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늙은 쥐가 싹을 한 구멍만 뚫듯 해야 합니다. 미련한 쥐나 어린 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싹을 뚫을 적에 이쪽에 뚫었다 저쪽에 뚫었다 하는데 늙은 쥐는 싹을 많이 뚫어왔기 때문에 싹이 나오든 말든 죽어라고 한 구멍만 뚫습니다. 화두 공부도 늙은 쥐가 싹을 뚫듯이 해야 도가 깨달아집니다. —혜암스님 어록 중에서

혜암스님은 1920년 전남 정성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효봉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승기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서릿발같이 독려하던 스님의 생애는 끝없는 정진뿐이었다. 해인사로 옮기던 27세부터 밤마다 놓지 않는 정좌불과 수행과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의 생애를 평생 동안 지켰다.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서 성철스님 이후에는 중단개혁에 앞장섰다. 해인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거쳐 조계종 제10대 총정에 추대됐으며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법랍 66세, 세수 82세로 열반했다.



신간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이.
공부다.

www.Yolimwon.com 구입문의 (02)3144-3700 **열림원**

“위로와 치유의 설탕을 찾아 몰려다니지 마라”

내 삶을 송두리째 깨우는 도법 스님의 죽비소리

도법 스님의 삶의 혁명 **지금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젊은 당신에게”

위로를 통해 치유하고 희망을 찾겠다는 것은 에어컨 처방과 비슷해서 순간적으로 편하고 좋을 수 있으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착각과 환상에 증폭되게 합니다. 위로와 치유의 설탕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유랑하고 몰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직시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보면 우리들의 어리석음, 겁 많음, 게으름, 나약함, 이해타산, 무력감 나아가 누군가가 나서서 내 문제를 잘 해결해주겠지 하는 마음의 핑계가 보입니다. 그것을 혁명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큰 용기를 내야, 비로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_서문 중에서 문의 070-7606-7430



화제의 신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젊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 도법 지음 | 다산초당 | 13,000원